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www.kicce.re.kr	보 도 자 료		
	작 성	담당부서	출판홍보팀
		담당자	김혜진 팀장(☎02-398-7729)
	배 포	담당부서	출판홍보팀(☎02-398-7740)
		일 시	2026년 5월 6일(수)
보 도 일 시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지 「육아정책연구」 제20권 제1호 발간

< 주 요 내 용 >

- 육아정책연구소(소장 황옥경)는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등재지 학술지인 「육아정책연구」 제20권 제1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유보통합, 아동 발달, 부모 양육, 청소년 정신건강 등 정책적으로 중요한 주제를 다룬 총 5편의 논문이 수록되었으며, 이 중 2편은 일반논문, 3편은 한국아동패널 및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자료를 활용한 논문으로 구성되었다.

□ 게재논문 주요내용

		논문제목	저자
일반 논문	1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평가체계의 방향과 정책과제: 전문가 델파이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박창현(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주 요 내 용	-주요 키워드: 유치원·어린이집 평가, 유보통합, 전문가 델파이 조사 -연구 개요 및 핵심 결과: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으로 분절된 평가체계의 통합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법·제도적 이원 구조가 통합의 근본적 장애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제도 보완과 거버넌스 조정이 핵심 해결방안으로 합의되었다. 또한 통합평가의 설계 원칙으로 성찰·대화 기반 자체평가, 개선 중심 평가, 과정의 질, 교직원 성장이 도출되었다. 핵심 요소에서는 과정의 질, 교사 전문성, 아동 권리가, 지표 영역에서는 놀이 중심 교육과정과 교직원 전문성이 최상위 합의를 보였다. 실행 체계에서는 법·지침 정렬과 데이터 허브 구축이 중요하며, 단기 우선 과제로 거버넌스 합의, 공통지표 정비, 평가자 전문성, 로드맵 설정이 확인되었다. -정책적 시사점: 거버넌스 합의는 통합평가의 전제조건이며, 데이터 기반 질 관리 체계 구축은 평가 결과를 지속적 질 개선으로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이다. 또한 현장 지원 중심의 환류 구조가 평가의 교육적 의미를 결정하고, 평가 결과의 공시는 서열화·낙인 방지를 전제로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논문제목	저자
한국 아동패널 및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논문	2	학령기 아동의 감정 측정을 위한 정서 어휘 선정 및 군집구조 분석: 3~6학년을 대상으로	김도형(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부연구위원)
	주요 내용	-주요 키워드: 학령기 아동, 감정 측정, 정서, 정서 어휘, 군집분석 -연구 개요 및 핵심 결과: 본 연구는 초등학교 3~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2016년과 2025년에 감정 측정을 위한 정서 어휘를 수집·선정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군집구조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서 어휘는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로 명확히 구분되며, 하위 차원에서는 의미적 유사성에 따라 군집화되는 구조를 보였다. 또한 긍정 정서는 경험 빈도가 높을수록, 부정 정서는 경험 빈도가 낮을수록 전반적 행복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2016년과 2025년 조사 결과 간에 높은 상관성을 보여 정서 구조의 시계열적 안정성이 확인되었다.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정서 어휘로 아동의 정서 상태를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초 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어린이 정서 측정 도구의 개발과 표준화가 필요하다. 또한 정서 어휘 기반의 학교 정서교육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교사 및 아동 관련 전문가의 정서 이해 및 활용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가정에서의 정서 소통을 정서 어휘 기반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서 어휘 기반의 어린이 행복 지표 개발이 필요하며, 정서 어휘 연구의 지속적 확장이 요구된다.	
	3	부모의 양육분담이 양육부담을 매개로 영아의 미디어 이용 시간에 미치는 영향: 부-모 상호의존모형 분석	신나은(연성대학교 유아교육과 겸임교수) 김정숙(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박성빈(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주요 내용	-주요 키워드: 양육분담, 양육부담, 영아 미디어 이용,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 한국아동패널,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 개요 및 핵심 결과: 영아의 미디어 이용시간에는 어머니의 양육부담만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어머니의 양육부담이 높을수록 영아의 미디어 이용시간이 증가하였다. 매개효과 분석 결과, 어머니의 양육분담이 어머니의 양육부담을 매개로 영아의 미디어 이용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 매개 경로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영아기 가정에서 부모의 양육 경험이 부부 간 상호의존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며, 특히 어머니의 양육부담이 영아의 미디어 이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정책적 시사점: 영아의 미디어 사용과 관련하여 부부 공동 참여를 기반으로 하되, 어머니의 양육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 설계되는 것이 요구된다. 영아의 미디어 이용은 단순한 미디어 사용의 통제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양육분담 구조와 양육 부담의 맥락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으므로, 양육지원과 부모 상담, 미디어 교육을 각각 분절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상호 연계된 통합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논문제목	저자
	4	정신건강 이중요인 모형에 기반한 초기 청소년의 정신건강 하위유형 탐색과 적용	이선영(인하대학교 대학원 아동심리전공 박사수료/서울 아동발달센터장) 최지영(인하대학교 아동심리학과 교수)*
	주요 내용	-주요 키워드: 정신건강 이중요인모형, 잠재프로파일분석, 초기 청소년, 정신건강 유형, 심리·사회적응 기능, 한국아동패널,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 개요 및 핵심 결과: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의 정신건강이 긍정적·부정적 지표를 기준으로 어떠한 잠재유형으로 구분되는지, 1년 후의 사회기능 및 심리·사회적 적응에서 어떠한 차별적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 보았다. 잠재프로파일분석 결과, 초기 청소년들은 건강집단, 중간수준집단, 취약집단, 문제행동집단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문제행동의 수준이 높은 집단보다도 긍정적 지표가 낮은 '취약한 집단'이 심리·사회적 기능 측면에서 가장 큰 위험을 보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책적 시사점: 병리 수준이 가장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웰빙 자원이 취약한 집단이 학교적응, 또래관계, 미래에 대한 인식 등 전반적인 심리·사회적 기능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보였다는 점은, 기존의 병리 중심 선별 체계가 실제로 가장 취약한 청소년을 간과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병리 위험군 뿐 아니라 웰빙 저하 집단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지원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수준: 2008년과 2022년 비교를 중심으로	오윤경(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강사, 경희대학교 유아·아동연구소 소장)
	주요 내용	-주요 키워드: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수준, 코호트, 한국아동패널,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 개요 및 핵심 결과: 본 연구는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을 아동패널조사(2008)와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조사(2022) 1차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은 2008년에 비해 2022년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은 2008년에 비해 2022년이 전반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삶의 즐거움 감소'와 관련된 일부 문항에서는 2022년이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은 2008년에 비해 2022년에서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시사점: 아버지의 실질적인 양육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 강화가 필요하고, 어머니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균형 회복을 위한 다차원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변화하는 가족 구조와 양육환경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교신저자

☐ 육아정책연구소는 이번 학술지를 통해 영유아 정책의 핵심 이슈에 대한

근거 기반 연구를 축적하고, 정책 설계 및 현장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게재 논문은 [육아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육아정책연구 제20권 제1호 파일 1부. 끝.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육아정책연구소 출판홍보팀 김혜진 팀장(☎ 02-398-772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